



부산시립무용단
특별 공연

2000. 시민을 위한 『우리춤 대향연』



안무 · 구성 : 이 노 연 (수석안무자)

특별 출연 : 이 영 희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김 은 이 (동아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2000.10.4(수) 19:30



부산문화회관 대강당
PUSAN CULTURAL CENTER MAIN HALL



싱그런 과실의 단 내음을 물씬 풍기는 시월.

“부산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시민 여러분이 평소 즐기고 좋아하는 「우리춤 대향연」의 두 번째 무대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부산을 빛내는 시민들께 선사하는 부산시립무용단의 화려하고 멋드러진 ‘춤의 향연’을 마음껏 즐기고 삶의 활력을 듬뿍 실어가지기 바랍니다.

이 공연을 더욱 빛내주실 이영희 선생님, 김은이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특별출연



이영희

· 새암춤회 예술감독
· 현/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김은이

·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이수자
· “깃” 예술감독
· 현/ 동아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스텝

· 안무·구성 : 이노연
· 훈련지도: 홍기태 · 무대감독: 서종철 · 조명: 신상준 · 음악: 전인수
· 소품: 안정숙 · 홍보: 김장국 · 기획: 박소운



「시민을 위한 우리춤 대향연」

1. 허튼춤 서지영 외 18명

흥풀이춤의 일종인 이 춤은 흥과 멋이 주이며 외형적인 아름다움 즉 태(態)자체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며 동작에 있어 여러 형태가 있으나 추는 사람에 따라 춤의 기본을 이용하여 나름대로 멋을 부려 추는 춤으로써 누구나 출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춤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2. 나례무 장래훈 외 2명

‘나례(雉禮)’란 음력 설달 그믐밤에 민가와 궁중에서 묵은 해의 잡귀 등을 몰아내고 새해를 정갈하게 맞이하여 나라 전체가 태평하고 백성이 평안하도록 하기 위해 베풀던 의식이다. 이때 추어지던 춤들 중 하나가 오늘날 전해지는 ‘태평무’의 원형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론하며 이 시대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며 현대화시켜 재구성, 안무한 작품이다.

3. 태평무 : 특별출연 : 김은이

조선 궁중의 왕비 의상과 같은 화려한 복식을 갖추고 나라의 태평성대를 나타내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춤으로 멋과 흥을 실은 발디딤이 섬세하고 민첩하며 다양하다. 반주 음악은 무속 장단인 진쇠 장단과 낙중, 터벌림, 도살풀이 장단을 쓴다. 또한 절제된 상체의 움직임과 섬세한 손놀림이 우아하면서도 절도가 있어 그 멋을 더한다.

4. 만세무 이윤혜 외 22명

만세무는 궁중무용인 여러 정재 즉 헌천화, 선유락, 무고, 향발무, 아박무를 혼성한 합설무를 재구성시킨 작품이다. 정재는 원래 국가의 경사 때 왕실의 존엄과 위엄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춤으로, 화려한 무복과 무구를 갖추어, 장엄하고 기품있는 춤사위로 춤과 예를 표현하였다.

5. 살풀이춤 : 특별출연 : 이영희

살풀이춤은 용어의 뜻으로 보면 (살)을 푸는 춤이라 할 수 있다. 살을 푼다함은 막힌 액을 풀어서 깨끗이 심신을 정화시키는 종교적 의미성을 담고 있다 하겠다. 그래서 이 춤의 원초적 발생은 굿판에서 나온 것이며 무악인 살풀이곡에 맞추어 추어진다. 특히 살풀이춤은 승무와 더불어 한국 전통춤 가운데서 가장 예술적 차원으로 승화된 한국춤의 백미라고 말한다. 그리고 후자는 이 춤을 교방무용으로 단정하기도 하지만, 본인의 관점으로는 찰라나 동요도 허용치 않는 의식집중을 통하여 무작(無作)이 행해질때 천·지·인(天·地·人)의 왕성한 기(氣)가 합일을 이루는 고도의 정신적 세계를 표상하는 춤이라고 늘 생각하여 왔다. 본 살풀이춤은 이매방류 살풀이춤을 토대로 재구성 하였다.

6. 부채춤 김주영 외 10명

화려한 무복을 입은 여인들이 부채를 들고 나와 꽃, 파도 및 원과 직선의 기하학적인 아름다운 구도를 그려내며 추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춤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창작무용이다.